

특별기고

조선소 연구소장 Do-ing 대학으로 가다

서종수(동명대학교 Do-ing 대학)

“선주가 배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인도를 앞두고 최종 시운전을 하고 있던 선박에서 다급한 무전이 왔다. 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지연 페널티를 묻지 않으려고 시운전 부서, 설계, 연구소 직원들이 대거 승선한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원인 모를 큰 소음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0월 첫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 온 지 딱 한 달 만에 맞이하는 추석은 그렇게 대마도 앞바다에 떠 있는 시운전 선박에서 보내게 된다.

오래 전 얘기지만, 뉴밀레니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런던에서 점심을 같이하자는 후배의 반가운 전화를 받고, 승용차로 한 시간을 북쪽으로 달려 타국의 수도에서 안부를 서로 묻게 되었다. 지금은 누구라고 하면 조선 분야 사람은 다 알 만한 그분이 내게 학위를 마치면 삼성중공업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는 자리였다 (돌이켜 보니 그 자리가 사실상 점심을 빙자한 면접 자리였으리라). 사십이 넘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 한국에 돌아가도 그럴싸한 취직자리가 뱅کم 생기지 않을 거라는 불안함도 있었고, 이제 이만큼 바깥으로 싸돌아(?)다녔으니 한국으로 돌아가 차분히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바람도 있었기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러하리라 맘을 먹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시기와 같이한 2001년 늦여름에 삼성중공업의 진동소음 연구소 부장으로 거제도로 향한다. 기술력과 생산력이 공히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산업 그중의 하나인 조선해양 산업은 이 시기를 맞아 세계의 명품 공장으로 그 위상을 떨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랑스러운 조선소의 구성원이 되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A급 인재로 의기양양하게 조선소 연구소에 입사했다는 것에 좋아하는 시간은 정말 찰나였다.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우리 회사의 선박이 원인 모를 문제로 끄끄거리는 사태를 맞은 날! 정작 문제에 부딪혔을 때 쓰임새 있는 유효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실로 쥐구멍이 있었다면 기어들어 가고 싶은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애써 태연한 척하는 이른

바 A급 인재의 어깨 뒤로 슬그머니 선배 한 분이 건네는 말인즉슨, “그거 구조 문제 아니야! 유체 문제일 가능성이 커..” 그렇대! 나는 몰랐다..! 배운다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아떨어진 기억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덕분에 문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해결되었으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확연히 느낀 사건이었다.

이듬해 거제 연구소에서 대전으로 부서를 옮겨 유체 분야를 주로 다루는 대전의 연구센터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운명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일 년 전 대형 컨테이너선의 프로펠러 유체 소음 문제가 멀리 대전 연구소로 가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한 이력과는 전혀 별개의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전배였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대전의 연구소는 어느새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능 문제의 해결사이자 친환경 선박 개발 경쟁에 우위를 가지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나름 연구원들의 자부심도 높았고 회사로부터의 신망도 두터웠다. 사실 대전에서는 실험 설비가 워낙 좋아서 이론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들어 시험해보는 여건이 되었기에 실험적 기술 개발의 기반이 탄탄하여 성능 개량 R&D 활동에는 적합한 환경을 가졌다고 본다.

중공업의 연구소를 맡아 선배들의 업적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를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부끄럽게도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된다. 요즘의 시기에는 여전히 젊은 나이에 일을 손에서 놓는 격이니, 주변에 송구하고 스스로도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드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퇴직을 해 본 다른 공학도들의 사정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우나, 자신의 경우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써먹을 데가 없었다는 것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 관리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었으니,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고 안타까웠지만, 이는 결코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되짚어본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개발에 대해 나름의 소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룩한 시대를 앞선 뛰어난 발명품 중에는 세계에 자랑할 것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서방 선진국에 비해 늦게 과학 기술의 개발에 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화도 좀 늦게 발동이 걸린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초기에는 First Mover(시발 자)가 되지 못하고 '알'이 빠진 Fist Mover로서 주먹 꼭 쥐고 열심히 따라잡고자 엄청난 노력을 쏟아 오늘날의 눈부신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런데, 세상은 늘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영원한 일등이 없는 대규모 리그전의 시장환경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따라잡기가 아닌 먼저 나가는 즉,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식과 아이템을 잡아서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재차 인용하자면, 우리의 기술 개발 행보에서 그 빠진 'r'이 뭐냐고 나름 정의해 본다면, '실용의 정신' 즉 'realistic'의 'r'이라고 하고 싶다.

두잉(Do-ing)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전호환 박사의 야심작이다. 국립대학교 재임 시기 중 약 2년여 기간에 이 교육의 기초를 하나씩 다지기 시작했고, 2021년 4월에 부산의 사립대학인 동명대학교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교육 철학의 윤곽을 드러내었다. 필자는 그 무렵에 고향(경남 진해)에 내려와 강아지 한 마리와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전원 주택을 보러 다니는 와중에 동명대학교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한다는데 거리가 멀어 대신 참석해주면 좋겠다는 존경하는 분의 부탁을 받고 그때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시발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렇다고 이 인연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고, 그만큼 아무리 큰 사건도 자그마한 계기로 촉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신문 사설)

동명대학교의 2022학년도 신설 Do-ing 대학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이 역놀이 채

단 1명을 위한 일등 프레임에 99명이 갇힌 교육 시스템을 이대로 계속 이어가다가는 젊은이들의 좌절된 꿈만 남겨질 뿐, 미래의 다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Do-ing 대학은 경쟁 위주의 획일적인 기존의 대학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협업과 팀워크를 강조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으로,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 시험이나 경쟁을 통한 학점 등급이 없이 성공/실패로만 평가

하는 '무학점', 틀에 박힌 가르침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먼저 시도하고 체험하게 하는 '무티칭'의 3무 교육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학 교육 분야에서 혁명적 시도를 하는 이 대학은 2022년 3월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교과 구성으로, 앙트레 프리너십(창업, 기업가 정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디지털 공연예술의 3개 전공을 개설했고, 3개 전공 간 복합 전공 이수 가능하고 3년 만에 졸업 가능한 실용적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70여 개로 구성된 다양한 교과목은 지식보다는 도전과 체험을 통해 건강한 육체, 올바른 인성과 실행력을 갖춘 변혁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펼침에 그 목적을 둔다. 주요 과목들은 전공 별 7개 과목과 19개의 학부 공통과목, 37개의 전공 선택과목 및 그 어떤 주제도 수용되는 1~2개의 자유 선택과목으로서 구성된다. 믿기 어렵겠지만, 주요 교과목으로서 예를 들자면, 고전읽기 100권, 글쓰기, 스피치, 재무제표 작성, 주식투자, 암호화폐 채굴, 외국노래 부르기, 100대 명산 오르기, 승마, 오토,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조종, K-Pop, 뮤지컬, 외국탐방, 자산관리, 무덤 체험, 스포츠댄스, 1인 1악기 등의 키움, 도전, 체험, 공연 분야 고른 실내, 야외 활동들을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의 수강 신청 대상 과목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소의 연구소장으로 일찌감치 퇴임한 내가 지금의 Do-ing 대학의 전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러한 혁신 뽐뽐의 신설 대학을 맡아 상당히 개성이 강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틀을 깨' 혁신의 DNA를 가진 자가 해야 제대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Why NOT?'이라는 오기가 발동한다. 유체량 일도 상관없는 구조쟁이가 대전의 연구소에서 중공업의 통합된 초대 중앙연구소장까지 해 봤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냐고...

10년을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 다 털어 자비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IMF 사태로 환율 300% 급등에 한방에 학자금 다 털려 가면서도 공부를 마친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냐고...

그렇다 '실행'이다. Do-ing이다.



서종수

- PhD, University of Southampton
- 현 재 : 동명대학교 Do-ing대학 학장
- 관심분야 : 실용인재 양성
- E - mail : jongsooseo@tu.ac.kr